

무더운 여름을 대비하는 폭염 영향예보, 농촌 어르신께 직접 전해드립니다

- 부산지방기상청-창녕군 협업, 농촌 어르신 대상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시범운영 -

부산지방기상청(청장 김현경)과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70대 이상 농촌 어르신 200여 명에게 폭염 상황과 대응 요령 등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를 시범운영(7.1.~9.30.)한다.

창녕군은 부울경 20개 시군 중, 최근 10년간 연평균 폭염일수(31.4일)와 여름철(6~8월) 평균최고기온(31.0℃) 최고 지역으로, 양파, 마늘 등 특히 여름철 야외작업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부산지방기상청과 창녕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재난문자 서비스를 신청한 군 내 70대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눈높이 맞춤형 기상 정보를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 폭염 영향예보*에서 취약인 대상 보건 분야가 ‘주의’ 단계 이상일 때, 단계가 조정되거나 폭염 상황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 폭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험 경감을 위해 지역·분야별 영향정보를 4단계 위험 수준(관심, 주의, 경고, 위험)과 대응요령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부산지방기상청은 폭염 영향예보 등 폭염 정보와 폭염 대응 요령을 어르신들의 눈높이 맞춤형 기상정보로 생산하고, 창녕군은 자체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 관리와 문자 발송을 담당한다.

2022년 창원시 대산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창녕군으로 대상지역을 이전, 확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시범운영 서비스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경상남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농촌 어르신 눈높이 맞춤형 기상정보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정보 소외감 해소와 기상정보의 이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특성과 관측예보가 융합된 생활밀착형 기상정보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경 부산지방기상청장은 “안전한 여름을 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 2가지는 ‘물, 그늘, 휴식’과 폭염 영향예보 등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다.”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기상정보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 창녕군 농촌 어르신 대상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체계 >



담당 부서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 장	선지홍 (051-718-0320)
		담당자	사무관	김연매 (051-718-0351)
<공동>	창녕군 안전처수과	책임자	과 장	하일문 (055-530-1800)
		담당자	팀 장	임현도 (055-530-1832)